

잡아함35 삼정사경

날짜: 12월 8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05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지제(支提)에 있는 죽원정사(竹園精舍)
에 계셨다.

그때 출가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은 세 정사(正士)가 있었으
니, 즉 존자 아누율다(阿覩律陀), 존자 난제(難提), 존자 금비
라(金毘羅)였다. 그때 세존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 생각을 아시
고 곧 훈계하여 말씀하셨다.

“비구들아, 이 마음[心]과 이 뜻[意]과 이 의식[識]으로 마땅
히 이렇게 사유하고, 이렇게 사유하지는 말며, 이 탐욕을 끊
고, 이 색을 끊으며, 몸으로 완전히 진리를 증득하여 거기에
머물러야 한다.

비구들아, 과연 항상하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며 바르게 머
무르는 색이 있는가 ? ”

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. “없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색은 무상하며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.
그런 것이 바르게 머무를 수 있겠는가 ? ”

“없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색은 무상하며 변하고 바뀌는 법(法)
으로서 싫어하고, 탐욕을 떠나며, 번뇌를 조복받아 적멸에 들
며, 묵은 업(宿業煩惱)을 소멸하게 해야 할 것이다.

이와 같이 색은 본래부터 그 일체가 무상하고, 괴로우며,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. 이렇게 알고 나면 그 색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번뇌의 해로움과 불꽃, 근심과 번민은 모두 끊어져 없어진다. 그것이 끊어져 없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되고, 집착할 것이 없게 된 뒤에는 안락하게 머무르게 되며, 안락하게 머무른 뒤에는 반열반(般涅槃)을 얻게 된다. 수 · 상 · 행 · 식도 그와 같으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, 세 정사(正士)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였다.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